

행복과 부패 특성에 관한 연구: OECD 국가 분석과 한국에의 시사점*

이지현**, 최인***

본 논문은 부패에 대한 인식이 국민 행복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다. 이를 위해 OECD 국가들의 2012-2021 10개년 패널데이터 자료를 수집하여 선형회귀모형, 고정 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을 사용해 실증 분석하였다. 경제수준, 사회수준, 정부수준에 따른 효과를 통제한 후 분석한 결과 부패인식 개선이 행복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는 국민의 행복지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부패를 없애려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남긴다.

핵심주제어: 부패, 행복, 고용률, 사회적 관계, 공적지출

JEL Classification: D73, I31, G41

(접수일 : 2023. 06. 07, 수정일 : 2023. 09. 04, 게재확정일 : 2023. 09. 11)

* 이 논문은 주저자가 2022년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하였다.

** 주저자,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 (leeghyun@korea.ac.kr)

*** 교신저자,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inchoi@gmail.com)

I. 서론

한국은 눈부신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행복 증대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1인당 국내총생산 (GDP), 실업, 인플레이션 등 경제적 요인이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왔다. (cf. Altindag and Xu, 2017; Oswald, 1997; Tavits, 2008). 그러나 가치관의 변화로 시민들은 물질적인 가치 외에도 불평등, 공정 등과 같은 행동의 가치를 중시하게 되었다 (cf. Inglehart, 1997). Frey and Stutzer (2000)는 사람들이 사는 정치체제의 종류가 그들의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정치 체제 변수 중에서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는 부패라고 강조하였다. 이처럼 행복에 대한 최근의 연구는 경제적 발전이 자동적으로 삶의 만족도와 질을 제고시키지 않으며 경제적 요인 이외에도 다양한 다른 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cf. Lambiri et al., 2006).

위에 언급한 연구결과는 행복의 결정요인 분석을 위해 질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본 논문은 행복을 결정하는 질적 요인 중의 하나로 부패에 주목하고자 한다. 부패는 사회 구성원 간 신뢰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 시스템을 약화시키며 경제 발전을 저해하며 불평등, 빈곤, 사회 분열 및 환경 위기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부패는 재정 지출 비중에 왜곡을 일으키고 불평등한 구조를 고착화시키기도 한다. Mauro (1998)는 부패가 GDP대비 교육 및 보건 지출의 비중을 감소시킨다는 실증 분석 결과를 발표했으며 Tanzi and Davoodi (1997)는 정치적 부패가 공공 투자 비중을 증대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신봉호 (2010)는 부패한 국가일수록 경제예산 대비 복지예산 상대적 비중이 작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즉, 부패가 교육과 보건지출 비중을 감소시키며 복지예산보다 경제 예산의 비중을 증대시킨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궁극적으로 부패가 분배의 불균형에 따른 형평성을 저해하고,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구조화로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주며 결국 국민 행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부패가 행복에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고자 유엔이 제공하는 행복 수준을 종속변수로 기타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설정한 실증분석 결과를 제공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부패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기 위해 패널회귀

분석에 주로 쓰이는 선형회귀모형,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을 사용했다. 하우스만 검정에 따르면 귀무가설 독립변수와 개체의 이질성간의 상관관계가 없어 확률효과모형이 고정효과모형 사용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된다. 부패 인식 향상은 행복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며 부패인식이 1단위 긍정적으로 증가했을 때 행복은 0.008-0.014점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부패한 국가에서는 국민이 행복하지 않다는 것이다. 나아가 경제수준, 사회수준, 정부 수준으로 분류하여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실증 분석한 결과 고용률, 사회적관계, 공공사회지출이 증가할수록 행복은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평균교육기간이 1년 증가했을 때 행복지수는 0.114-0.123 감소하며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며 기존의 다수 문헌과 일치한다. 일반적으로 대학 졸업생은 교육 수준이 낮은 동료보다 실업과 관련된 더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고등 교육을 추구할 가능성이 더 높을 수도 있으며, 많은 연구에서 이러한 분석 결과를 이끌어낸다 (Veenhoven 2010). 한편 1인당 GDP, 지니계수, 기대수명, 자유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부패가 행복에 미치는 주요 경로로서 해외의 기존 연구는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동등한 기회,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등과 같은 헌법적인 기본권에 관심을 두어 왔다. 또한, 한국에서는 주관적웰빙 또는 삶의 만족도의 구성 요소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지만 대부분 개인적 차원에 머무르고 있다. 본 논문은 개인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차원의 공공거버넌스 역할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기존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은 거버넌스의 질적요소인 부패가 국민들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개인의 행복을 형성함에 있어 국가의 부정부패 등 거시적 원인이 중요함을 확인하려 한다. 나아가 OECD국가들의 경제적 위치에 따라 경제수준, 사회수준, 정부 수준에서 행복지수에 미치는 영향을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와 유사하게 부패와 행복간 정량분석을 한 연구로는 Li and An (2020)이 있다. Li and An (2020)은 부패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126개국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논문의 특징은 산업화 이전 민주주의 수준을 도구변수로 사용하여 부패의 내생성을 고려한 점이다. 결과는 본 논문과 유사하게 선진국에서 부패가 행복 수준을 낮춘다는 것이다. 본 논문은 Li and An (2020)과 달리 OECD 국가에 치중하였으며 다양한 독립변수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절에서는 부패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검토할 것이다. III절에서는 II절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분석모형과 변수들에 대해 설명하며 연구를 설계한다. IV절에서는 OECD 국가들에 대한 패널 자료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부패가 행복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를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V절에서는 분석 결과를 요약하고 분석의 시사점, 그리고 후속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본다.

II. 부패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행복과 부패의 개념

행복은 인간 삶의 목적이다. 행복은 삶의 질 제고와 일과 노동 간의 균형을 통해 잘 사는 (well-being) 것을 의미하며, 사회발전과 진보도 결국 행복을 위한 것이다. 행복은 경제학에서는 효용으로써, 법학에서는 기본권이란 명제로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어왔으며, 행복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시스템에 근거한 국가 차원의 정책적 작업도 필수적이다.

학계에서는 행복이라는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을 삶의 질 (QOL, quality of life), 삶의 만족도 (LS, life satisfaction), 주관적 웰빙 (SWB, subjective well-being), 일과 삶의 균형 (WLB, work and life balance)의 관점에서 다양하게 연구해왔다. (cf. Helliwell, J. F. 2003). 다수 연구가 행복의 결정 요인들을 설명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으며 (cf. Frey and Stutzer 2000), 이는 국가가 더 많은 사람들이 더 큰 행복을 성취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cf. Brülde 2010).

전통적으로 부패란 ‘사적이익을 위해 공권력을 오남용하는 것 (the abuse of entrusted power for private gain)’이라는 공직을 중심으로 한 개념 정의가 주류를 이룬다. (cf. Andersa and Paybe, 2003; Elliott, K. A., 1997; Rose-Ackerman, 1999). Kurer (2005)에 따르면 부패를 “공무원이 사적인 이득을 위해 비차별이라는 공직규범(non-discrimination norms)을

여기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부패의 원인인 사적 이익 추구가 단기적으로 행복을 증가시킬 수도 있지만 부패의 결과인 공권력의 오남용은 장기적으로 다수 국민의 행복을 감소시킬 수 있다.

2. 부패가 행복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논의

부패가 행복감에 미치는 경로는 다양하고 이에 대한 많은 연구결과가 존재한다. 첫째, 부패는 시민들 사이에 불신을 가져오고 (cf. Rothstein 2010) 대인관계 신뢰는 행복을 증가시킨다는 연구결과는 (cf. Growiecs and Growiec 2014; Hommerich and Tiefenbach 2018) 부패가 행복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암시한다. 둘째, 부패는 투자를 억제하여 경제 성장을 저하시킬 수 있고 (cf. Coggburn and Schneider 2003; Mo 2001), 경제 성장 저하는 행복을 감소시킨다 (cf. Sacks et al. 2010). 셋째, 부패는 복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소득 불평등을 악화시키기도 한다. (cf. Glaeser and Saks, 2006; Alesina et al. 2004). 극심한 불평등은 사회구성원의 행복감을 저하시킨다. 넷째, 부패는 행복감을 높이는 부문에 (예: 교육) 대한 투자에 소홀하고 (cf. Mauro, 1998) 군사부문에 더 많이 투자함으로써 국민들의 행복감을 줄일 수 있다. (cf. Gupta, 2001). 다섯째, 부패는 정부의 낮은 행정 효율성, 열악한 통치 구조, 정치적 불안정을 야기시킴으로써 행복감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cf. Samanni and Holmberg, 2010). 여섯째, 부패는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기회 균등,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행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cf. Li, Q., and An, L., 2020 재인용)

III. 연구설계

1. 분석모형과 통계자료

부패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모형은

$$H_{i,t} = \alpha_i + \beta_1 C_{i,t} + \beta X_{i,t} + \epsilon_{i,t}$$

이다. 여기에서 i 와 t 는 각각 국가와 연도를 나타내는 지수이고 α_i 는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국가별 고정적 특성, $\epsilon_{i,t}$ 는 오차항이다. 종속변수 $H_{i,t}$ 는 i 국가의 t 기 행복지수를 의미한다. $C_{i,t}$ 는 부패를 나타내는 설명변수를 의미하며, $X_{i,t}$ 는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제변수 (controlling variables)를 나타낸다. 통제변수는 1인당 GDP, 고용률, 지니계수, 기대수명, 평균교육기간, 사회적 관계, 공공사회지출, 자유지수, 연도더미를 포함한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모형을 토대로 OECD 가입국가 38개국과 비OECD 3개국을 포함한 총 41개국을 대상¹⁾으로 한 2012-2021 UN (United Nations)의 세계행복보고서 (world happiness report), 국제투명성기구 (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부패인식지수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OECD 통계, 프리덤하우스 (Freedom House)의 세계자유상황보고서 (freedom in world) 등 총 4개의 국가 단위 패널데이터를 사용하여 실증 분석 결과를 도출하였다.

2. 변수의 출처와 조작화

1) 종속변수

실증분석에 사용된 종속변수는 행복 수준으로 유엔의 세계행복보고서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 보고서는 2012년 첫 번째 발간됐으며, 설문조사는 각 나라의 약 3000명의 응답자들에게 그들의 현재 상황을 평가하도록 요청한다. 이 설문 조사에서 질문자는 설문에 앞서 응답자에게 ‘사다리’라는 것을 상정하고 가장 위에 있는 것을 설문 내용에 대한 최고의 긍정 표시로 그리고 가장 낮은 단계에 있는 것을 부정 표시로 설명한다. 측정 수준은 보통 0 (사다리에서 가장 낮은 단계)에서 10 (사다리에서 가장 높은 단계)까지로 측정된다.

1)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일본, 핀란드,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체코, 헝가리, 폴란드, 한국, 슬로바키아, 칠레,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브라질, 러시아, 남아프리카 등 총 41개국이다.

2) 설명변수

실증분석에 사용된 주요 설명변수는 부패다. 부패의 대리변수로서 국제투명성기구에서 측정한 부패인식지수 (Corruption Perception Index; CPI)를 활용했다. 이 지수는 기타 연구에서도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CPI는 한 국가의 공공 부문이 전문가와 기업 경영진에 의해 얼마나 부패한 것으로 인식되는지를 기준으로 국가/지역을 점수화하고 순위를 매기며, 13개의 조사²⁾와 부패에 대한 평가를 결합한 종합 지수로서, 다양한 기관들이 수집한다. 각 국가의 점수는 13개의 서로 다른 부패 조사 및 평가에서 추출한 최소 3개의 데이터 소스를 결합한 것이다. CPI는 공공 부문의 부패 정도를 기준으로 전 세계 180개 국가에 대해 순위를 매긴다. 결과는 0 (매우 부패) ~ 100 (매우 깨끗함)의 척도로 제공된다. CPI 데이터 수집에 사용되는 질문은 뇌물수수, 공금의 유용 등³⁾이 있다. 한국의 CPI는 1995년 43에서 점차 높아져 2011년 54로 개선되었으나, 2012년 56에서 2016년 53까지 하락하였고 2021년 현재 62로 증가 추세이다. OECD 주요 국가들의 CPI 변화를 살펴보면, 핀란드, 호주, 영국, 미국 등은 1995년에 비해 낮아졌고 일본과 한국 등은 높아졌다. 핀란드의 경우 1995년에 비해 CPI가 떨어지기는 하였지만 꾸준히 상위권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2) ① African Development Bank CPIA(Country Policy and Institutional Assessment), ② Bertelsmann Foundation SGI(Sustainable Governance Index), ③ Bertelsmann Foundation TI(Transformation Index), ④ Economist Intelligence Unit (Country Risk Service), ⑤ Freedom House (Nations in Transit), ⑥ Global Insights Country Risk Ratings, ⑦ IMD World Competitiveness Center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⑧ PERC(Political and Economic Risk Consultancy Asian Intelligence), ⑨ The PRS Group International Country Risk Guide, ⑩ World Bank Country Policy and Institutional Assessment, ⑪ World Economic Forum Executive Opinion Survey, ⑫ World Justice Project Rule of Law Index Expert Survey, ⑬ Varieties of Democracy

3) ① 뇌물수수, ② 공금의 유용, ③ 공무원들이 결과에 직면하지 않고 사적인 이익을 위해 공직을 이용하는 것의 만연, ④ 공공 부문에서 부패를 억제하고 효과적인 무결성 메커니즘을 시행하는 정부의 능력, ⑤ 관료의 과도한 부담으로 부패 가능성 증가, ⑥ 공무원에서의 능력주의적 인사와 족벌주의적 인사, ⑦ 부패 공무원에 대한 효과적인 형사 소추, ⑧ 공무원 재정공시 및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적절한 법률, ⑨ 내부 고발자, 언론인, 수사관이 뇌물 및 부패 사례를 보고할 때 법적 보호, ⑩ 좁은 기득권층에 의한 국가 포획, ⑪ 공공업무에 관한 정보에 대한 시민사회의 접근

3) 통제변수

본 연구의 주된 관심인 부패의 효과를 엄밀하게 확인하기 위해 부패인식 지수 이외에 종속변수인 행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삼의 요인들을 통제하였다. 우선 행복과 부패를 변수로 한 모형에서는 Li and An (2020), Welsch (2008), 전승봉 (2018) 등의 선행연구와 Stiglitz et al. (2009)의 부(富), 사회 자본 (Social Capital) 그리고 사회, 정치 환경 등의 다면적 지표를 통해 삶의 질을 측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참고했다. 각 국의 일인당 GDP의 자연로그값, 고용률, 지니계수, 기대수명, 사회적관계, 공공사회지출, 자유지수를 통제 변수에 포함시켰다.

경제수준관련 변수로서 1인당 GDP, 고용률, 지니계수를 활용했다. 먼저, 1인당 GDP는 국가의 총소득과 관련된 대표적인 경제 지표로서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asterlin (1974)은 소득과 행복에 관한 연관성을 밝히기 위해 19개국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주관적 행복을 묻는 서베이 자료 (1946-1970)를 분석한 결과, 한 국가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할 경우 소득과 행복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즉 평균적으로 고소득자가 저소득자 보다 더 행복하다고 검증했다. 이 논문에서는 1인당 GDP는 유엔의 행복보고서가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WDI)에서 차용한 자료를 사용했으며, 1인당 GDP에 자연로그를 취해 활용하였다.

Verme (2009)에 따르면 고용률이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끼친다. 삶의 만족도에 대한 고용률의 효과는 낮은 수준의 고용에서는 긍정적이고 높은 수준에서는 감소한다. 고용률은 가난한 나라들의 행복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고용률의 증가만으로 행복을 향상시키는 것은 부유한 나라들에게 매우 어려운 과제임을 시사한다. 고용률 외에도 실업률이나 물가상승률 등의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라 삶의 만족도는 달라지는 것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cf. Konow and Earley, 1999).

Schwarze and Härpfer (2007), Smyth and Qian (2008)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평등에 대한 혐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득 불평등이 주관적 행복에 유의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Wang Peng (2015)은 소득

4) 고용률 = 15-64세 취업자수÷15-64세 인구수

불평등과 주관적 웰빙이 역U자형 관계에 있음을 발견했다. 소득불평등을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대표적 지표인 지니계수가 0.4보다 낮을 때는 소득불평등과 함께 행복이 증가하는 반면, 0.4를 초과할 때는 소득불평등의 증가가 행복의 감소로 이어진다. 반면, Becker and Tomes (1986), Clark (2003)에 따르면 소득불평등은 상향이동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불평등이 웰빙에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수준 관련 변수로서 기대수명과 평균교육기간, 사회자본을 활용했다. 출생 시 기대수명은 사망률의 요약척도로, 환경, 의료, 건강의 정도를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이다. 행복은 경제적 상태뿐만 아니라 깨끗한 환경, 개인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 상태 등에 영향 받는다. 따라서 의료, 건강, 신뢰 등과 같은 사회자본 (cf. Myers and Diener, 1995)이 행복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수 연구들은 교육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영향이 거의 없다고 한다 (Furnham & Cheng, 2000; Hartog & Hessel, 1998; Veenhoven, 1996, Alex C. Michalos, 2017). Okun et al. (1984)은 교육적 성취가 성인의 주관적 행복의 차이에서 1%에서 3% 사이를 차지한다고 결론 내렸다. Myers & Diener(1995)는 교육에 대한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가장 일반적인 것은 고등 교육이 사람들을 더 야망있게 만들 수 있고 더 높은 열망은 성취하기 더 어렵기 때문에 삶의 만족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Clark and Oswald 1995). 반면, Helliwell(2017)는 “교육은 행복에 작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행복을 증가시킨다” 주장했다.

사회적관계 (지지)는 어려움이 있을 때 의지할 수 있는 친구나 친척이 있다고 보고하는 사람들의 비율을 나타낸다. 이 비율은 개인이 가구원, 가족, 친구, 동료 및 기타 알려진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의 빈도와 양과 질(예: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만족, 인식된 외로움) 및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지원(예: 감정적, 재정적)을 파악한다. 사회적 고립의 문제는 행복 연구에서 행복을 저해하는 요소로 다루어져 왔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에 따르면 행복은 좋은 건강,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 자원에 대한 가용성과 접근성에 달려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태진 (2021)은 한국에서 한 사람이 곤란한 일을 경험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지지체계가 없는 상태로 고립된다면 일정수준의 행복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득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실증분석결과를 발표하였다. Rothstein and Stolle (2003)도

대인관계 신뢰가 행복을 증가시킨다는 증거를 제시하였다.

정부수준 관련변수로서 공공사회지출과 자유지수를 활용했다. 공공사회지출은 공공 및 의무적 지출, 자발적인 민간 사회 지출로 나뉘는데, 본 연구에서는 공공 및 의무적 지출의 GDP대비 수치를 사용했다. 공공사회지출이 삶의 질 (cf. Habib and Sadek, 2021; Scully, 2001), 복지 (cf. Haile and Nino-Zarazua, 2018)와 삶의 만족도 (cf. Nordheim and Martinussen, 2020)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여러 연구가 있어 왔다. 교육, 보건, 사회보장 및 공공보장에 대한 공공사회지출과 공공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주관적 복지와 긍정적으로 상관관계가 있다. (cf. Wasmer et al., 2009). 따라서 공공사회지출은 행복의 중요한 결정 요소라고 생각된다.

자유지수로서는 프리덤하우스의 세계자유상황보고서 2013-2021 패널 자료를 활용했다. 자유상황보고서는 정치적 권리와 시민적 자유에 관한 연례 글로벌 보고서로 국가별 수치 등급과 설명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 국가의 세계 자유 지위는 0-40 척도의 정치적 권리 점수와 0-60 척도의 시민 자유 점수에 따라 결정된다. 즉, 자유지수는 정치적 권리와 시민 자유 점수의 총합이다. 민주주의(cf. Dorn et al., 2007)와 자유(cf. Foa, Peterson and Welzel, 2008)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국가권력의 분권화 정도 (cf. Frey and Stutzer 2000), 민주주의 경험 (cf. Inglehart, 1999) 등 제도적 요인이 시민들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3. 기초통계량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 사용된 변수의 정의와 출처는 <표 1>에 정리되어 있다.

〈표 1〉 변수의 정의 및 출처

구분	변수명		측정항목	척도	출처
종속 변수	행복지수		행복지수가 높을수록 행복이 높음	0~10 (점)	UN
설명 변수	부패인식지수		수치가 커질수록 국가의 부패인식수준이 더 높아짐 (긍정적임)을 의미	0~100 (점)	TI
통제 변수	경제 수준	ln일인당 GDP	일정 기간 동안 한 나라 영토 안에서 생산된 최종 생산물의 시장가치의 합계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 수치가 클수록 한 나라의 경제력과 국민들의 생활 수준이 높음을 의미	USD (\$)	UN
		고용률	15~64세 생산가능인구를 기준으로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비율이 높을수록 한 나라의 취업자가 많음을 의미	0~100 (%)	OECD
		지니계수	빈부격차와 계층 간 소득의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며, 0(완전평등)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완전불평등) 에 근접할수록 불평등함을 의미	0~1 (비)	OECD
	사회 수준	기대수명	기대수명은 사망률의 요약척도로, 해당 수치가 높을 수록 상대적 기대수명이 높아짐을 의미	0~100 (세)	OECD
		평균교육 기간	해당 수치가 높을수록 상대적 교육기간이 길다는 의미	0~15 (년)	UNDP
		사회적 관계	어려움이 있을 때 의지할 수 있는 친구나 친척이 있는 사람들의 비율로 수치가 높을수록 사회적관계 (지지)가 높음	0~100 (%)	OECD
	정부 수준	공공사회 지출	해당 수치가 높을수록 GDP 대비 공공 사회 지출 비중이 큼	0~100 (%)	OECD
		자유 지수	해당 수치가 높을수록 국가가 자유로운 상황임을 의미	0~100 (점)	Freedom house

부패와 행복 수준 기타 변수들에 대한 기초통계량은 〈표 2〉과 같다. 이 통계량은 2012-2021 OECD 국가를 대상으로 관측치 410개를 통해 계산되었다. 〈표 2〉 기초통계량을 분석해보면 행복은 평균 6.6을 중심으로 큰 편차를 보이지 않는다. 부패인식지수는 대체적으로 평균값 64.8의 -17에서 +17 정도 범위 내에서 분포하며 최댓값과 최솟값의 차이가 상당히 크다. 1인당 GDP는 평균을 중심으로 편차가 크지 않으며 최댓값 최솟값의 차이도 작다.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의 소득수준이 비슷함을 알 수 있다. 지니계수는

대체로 낮은 편이다. 기대수명의 최댓값과 최솟값의 차이는 24세로 다소 차이가 크지만 평균을 중심으로 모여 있으며 표준편차 값이 작다. 평균교육기간은 약 12년으로 기초교육 이상 수준으로 표준편차의 값이 작다. 사회적 지수는 고립의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사회적관계가 비교적 잘 형성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공사회지출의 경우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브라질 등이 하위에 머무르고 있는데, 2012년 유럽 재정위기 이후 심각한 재정적자를 겪었던 이 국가들의 경제 및 재정지표 악화 탓으로 보인다. 자유 지수의 경우 러시아 터키 등이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표 2〉 기초통계량

(N = 410)

변수명		평균	SD	최소값	최대값
행복지수		6.57	0.78	3.66	7.88
부패인식지수		64.76	16.98	27	92
경제 수준	ln일인당 GDP	10.53	0.45	9.44	11.66
	고용률	73.99	7.10	47.25	86.51
	지니계수	0.33	0.08	0.22	0.62
사회 수준	기대수명	79.65	4.00	60.1	84.7
	평균교육기간	11.94	1.70	7.02	14.51
	사회적 관계	89.83	5.03	68.15	98.55
정부 수준	공공사회지출	43.33	15.86	13.24	84.99
	자유지수	85.06	14.68	19	96

다음으로 〈표 3〉은 더미변수를 제외한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를 보여주고 있다. 모든 상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였으며,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 계수 절댓값이 대부분 0.5 이하로 나타나 심각한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회귀분석을 진행하면서 분산팽창계수(Variation Inflation Factor: VIF)도 살펴봤으나 더미변수를 포함한 독립변수들의 VIF 값이 모두 10 이하로 나타났기 때문에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회귀분석을 진행하기에 앞서 이분산성(heteroskedasticity)의 존재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Breusch-Pagan 검정을 통해 등분산성의 가정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였는데, Breusch-Pagan 검정에서 귀무가설이 기각되어 이분산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분산성이 존재 함에도 불구하고 통상적인 회귀분석을 실시할 경우, 회귀계수들의 표준오차가 과소평가되어 t값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회귀분석을 진행함에 있어 이분산성의 문제를 고려하여 강건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 중에서도 클러스터 표준오차를 사용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분석하였다.

〈표 3〉 주요변수의 상관계수

변수	(1)	(2)	(3)	(4)	(5)	(6)	(7)	(8)	(9)	(10)
(1)행복지수	-									
(2)부패인식 지수	0.6139***	-								
(3)ln1인당 GDP	0.4487***	0.7751***	-							
(4)고용률	0.4947***	0.5875***	0.5401***	-						
(5)지니계수	-0.2050***	-0.5249***	-0.7118***	-0.5466***	-					
(6)기대수명	0.4169***	0.6281***	0.6889***	0.4277***	-0.6044***	-				
(7)평균교육 기간	0.2049***	0.5807***	0.6518***	0.6077***	-0.6206***	0.2705***	-			
(8)사회적 관계	0.4764***	0.5821***	0.4813***	0.5042***	-0.4107***	0.3016***	0.3762***	-		
(9)공공사회 지출	0.3899***	0.5380***	0.5509***	0.3768***	-0.2363***	0.1988***	0.3848***	0.3598***	-	
(10)자유지수	0.5139***	0.7460***	0.5147***	0.3418***	-0.4108***	0.5269***	0.3366***	0.4295***	0.1228***	-

주: ***은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의미한다

IV. 실증분석 결과

1. 기본 분석 결과

〈표 4〉는 부패에 대한 인식이 국가 행복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보여준다. 이 둘 간의 관계는 부패를 고려한 선형회귀모형(1), 고정효과모형(2), 확률효과모형(3)에서 동일한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

3가지 모든 분석모형에서 부패인식이 행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가의 부패인식지수가 1단위 증가할 경우, 즉 청렴도가 더 커질 경우 국민 행복이 0.008-0.014 증가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4〉 기본 분석

	선형회귀모형 (1)	고정효과모형 (2)	확률효과모형 (3)
부패	0.0079** 0.0039	0.0115** 0.0053	0.0136*** 0.0046
ln1인당GDP(달러)	0.2544* 0.1406	-0.0728 0.2960	0.0775 0.2153
고용률	0.0422*** 0.0052	0.0463*** 0.0074	0.0444*** 0.0063
지니계수	2.6048*** 0.5245	-1.1819 1.1980	0.2748 0.9240
기대수명	0.0146 0.0120	0.0189 0.0244	0.0201 0.0186
평균교육기간	-0.1231*** 0.0309	-0.1152** 0.0524	-0.1144*** 0.0403
사회적관계	0.0216*** 0.0079	0.0140*** 0.0044	0.0153*** 0.0043
공공사회지출	0.0071*** 0.0026	0.0038** 0.0017	0.0042*** 0.0016
자유지수	0.0141*** 0.0030	-0.0082* 0.0049	-0.0031 0.0041

	선형회귀모형 (1)	고정효과모형 (2)	확률효과모형 (3)
Observation	410	410	410
R-square	0.5395	0.3557	0.4785

주: 괄호안은 표준오차를 의미한다. *** $p < 0.01$, ** $p < 0.05$, * $p < 0.1$ 연도더미를 포함했으나 보고하지 않는다.

부패인식 이외에 행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제 변수 중에서는 고용률, 평균교육기간, 사회적관계, 공공사회지출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률이 한 단위 증가할 경우 0.042-0.046 정도 행복지수가 증가한다. 고용률이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실업은 행복감을 감소시킨다는 기존 연구결과와 부합하는 결과이다. (cf. Khorsandi and Azizi, 2015; Akerlof and Shiller, 2010; Blanchflower, 2014). 평균교육기간이 1년 증가했을 때 행복지수는 0.114-0.123 감소하며 기존 문헌과 일치한다. 대부분 기존 문헌의 연구가 소득, 건강 및 결혼 상태와 같은 변수를 통제하는 감소된 형태의 행복 회귀를 추정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 교육이 더 높은 수준의 주관적 행복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채널을 닫는다(Powdthavee et al. 2015). 곤란한 일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의 존재가 많을수록 행복은 높았으며 사회적관계가 1단위 증가했을 때 행복지수가 0.014-0.021 증가하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인다.

공공사회지출이 한 단위 증가할 경우 행복 지수가 0.003-0.007 증가하며 유의미한 결과를 보인다. Aydan (2022)과 Bradshaw (2009)도 유사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자유지수가 1단위 증가할 경우 행복 지수가 선형확률 모형에서는 0.014 증가하고 고정효과모형에서는 0.008 감소하는 것으로 보이나 확률효과모형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일인당 GDP 또는 GNP의 회귀분석 포함 여부에 따라 행복과 자유사이의 연관성이 사라지거나 유의미하지 않게 된다. 소득이 통제되는 자유지수와 행복 관계의 상관분석에서 Schyns (1998)가 유사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2. 고용률 분류에 따른 분석 결과

다음으로 <표 5>는 OECD 국가들의 고용율 평균 값인 74%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여 준다.

<표 5> 고용률 분류에 의한 분석

	OECD 평균 미만			OECD 평균 이상		
	선형회귀모형 (1)	고정효과모형 (2)	확률효과모형 (3)	선형회귀모형 (1)	고정효과모형 (2)	확률효과모형 (3)
부패	-0.013*** (0.006)	0.018** (0.008)	0.014** (0.007)	0.014*** (0.005)	0.013 (0.008)	0.015** (0.006)
ln1인당GDP (달러)	0.950*** (0.223)	0.295 (0.496)	0.110 (0.265)	-0.021 (0.163)	-0.145 (0.572)	-0.009 (0.298)
고용률	0.083*** (0.008)	0.047*** (0.010)	0.052*** (0.009)	-0.009 (0.012)	0.035** (0.015)	0.030*** (0.011)
지니계수	2.830*** (0.718)	-0.809 (1.867)	1.211 (1.223)	1.977** (0.790)	0.740 (1.612)	0.662 (1.247)
기대수명	-0.024 (0.017)	0.011 (0.039)	-0.000 (0.024)	0.028 (0.024)	0.085*** (0.032)	0.074*** (0.026)
평균교육기간	-0.209*** (0.043)	-0.160** (0.075)	-0.154*** (0.049)	-0.006 (0.032)	0.048 (0.088)	0.027 (0.060)
사회적관계	0.018** (0.009)	0.013** (0.006)	0.013** (0.006)	0.052*** (0.012)	0.013* (0.008)	0.017** (0.007)
공공사회지출	0.008* (0.004)	0.006** (0.003)	0.007*** (0.003)	0.004 (0.003)	0.003 (0.002)	0.003 (0.002)
자유지수	0.010** (0.004)	0.003 (0.007)	0.002 (0.006)	0.014*** (0.005)	-0.018 (0.011)	-0.002 (0.007)
Observation	165	165	165	245	245	245
R-square	0.627	0.406	0.396	0.536	0.175	0.163

주: 괄호안은 표준오차를 의미한다. ***p<0.01, **p<0.05, *p<0.1 연도더미를 포함했으나 보고하지 않는다.

고용률이 OECD 평균값의 미만인 국가의 경우 부패인식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선형회귀모형에서는 음의 방향을 나타냈고 고정효과모형 확률효과 모형에서는 각각 0.018, 0.014 정도 행복지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OECD 평균값 이상의 국가에서는 부패인식이 한 단위 증가할 경우 0.014-0.15 정도 행복지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패 인식 이외의 통제변수에서는 고용률이 1단위 증가하는 경우 OECD의 고용률 평균값 미만 그룹이 이상 그룹보다 행복지수가 더 크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률이 OECD평균값의 미만인 국가 그룹은 평균교육기간이 짧을수록 행복이 증가함을 보였다. 사회적관계가 1단위 증가할 때 행복지수가 양의 방향으로 나타나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보였다. OECD평균값의 미만인 국가 그룹은 공공사회지출이 1단위 증가함에 따라 행복지수도 0.006-0.008정도 증가했다. 이를 통해 OECD국가 가운데서 상대적으로 경제적 수준이 낮은 국가들에서는 경제수준, 사회수준, 정부수준 관련변수가 전반적으로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큰 반면 경제적수준이 높은 국가들에서는 기대수명을 제외하고 사회수준, 정부수준 관련변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사회적 관계 분류에 따른 분석 결과

〈표 6〉은 사회적관계 평균값인 90%를 기준으로 OECD국가들을 그룹화한 후 분석한 결과를 보여 준다.

〈표 6〉 사회적 관계 분류에 의한 분석

	OECD평균 미만			OECD평균 이상		
	선형회귀모형 (1)	고정효과모형 (2)	확률효과모형 (3)	선형회귀모형 (1)	고정효과모형 (2)	확률효과모형 (3)
부패	-0.020*** (0.007)	0.016 (0.010)	0.012 (0.008)	0.023*** (0.005)	0.004 (0.007)	0.011** (0.006)
ln1인당GDP (달러)	0.820*** (0.262)	-0.212 (0.584)	0.146 (0.296)	0.061 (0.148)	0.215 (0.422)	0.422* (0.255)
고용률	0.054*** (0.007)	0.044*** (0.012)	0.040*** (0.009)	0.030*** (0.007)	0.039*** (0.012)	0.044*** (0.008)

	OECD평균 미만			OECD평균 이상		
	선형회귀모형 (1)	고정효과모형 (2)	확률효과모형 (3)	선형회귀모형 (1)	고정효과모형 (2)	확률효과모형 (3)
지니계수	3.566*** (0.826)	-0.909 (1.851)	0.878 (1.240)	2.901*** (0.675)	1.827 (2.020)	2.447** (1.152)
기대수명	-0.001 (0.018)	0.084* (0.051)	0.032 (0.027)	0.045*** (0.016)	0.009 (0.031)	0.029 (0.021)
평균교육기간	-0.163*** (0.044)	-0.238*** (0.090)	-0.167*** (0.056)	-0.050 (0.034)	-0.085 (0.071)	-0.074 (0.049)
사회적관계	-0.003 (0.012)	0.017** (0.008)	0.016** (0.007)	0.058*** (0.016)	0.028** (0.011)	0.036*** (0.011)
공공사회지출	0.011** (0.005)	0.007** (0.003)	0.008*** (0.003)	-0.001 (0.003)	0.001 (0.002)	-0.000 (0.002)
자유지수	0.028*** (0.004)	-0.003 (0.008)	0.004 (0.006)	-0.001 (0.008)	-0.027*** (0.009)	-0.003 (0.007)
Observation	173	173	173	237	237	237
R-square	0.489	0.320	0.302	0.518	0.273	0.227

주: 괄호안은 표준오차를 의미한다. ***p<0.01, **p<0.05, *p<0.1 연도더미를 포함했으나 보고하지 않는다.

사회적관계가 OECD 평균값의 미만인 국가의 경우 부패인식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선형회귀모형에서는 음의 방향을 나타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OECD 평균값 이상의 국가에서는 부패인식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부패인식이 한 단위 증가할 경우 0.011-0.023 정도 행복지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패인식 이외의 통제변수에서는 고용률이 1단위 증가하는 경우 OECD의 사회적관계 평균값 미만 그룹에서 이상 그룹보다 행복지수가 더 크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관계가 OECD 평균값의 미만인 국가 그룹은 평균교육기간이 짧을수록 행복이 증가함을 보였다. 반면, OECD평균값의 이상인 국가 그룹은 사회적관계가 1단위 증가할 때 행복지수가 0.03- 0.0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보였다.

4. 공공사회지출 분류에 따른 분석 결과

〈표 7〉에서는 OECD 국가들의 공공사회지출의 평균 값인 43%를 국가들을 분류한 후 회귀분석한 결과를 보여 준다.

〈표 7〉 공공사회지출 분류에 의한 분석

	OECD평균 미만			OECD평균 이상		
	선형회귀모형 (1)	고정효과모형 (2)	확률효과모형 (3)	선형회귀모형 (1)	고정효과모형 (2)	확률효과모형 (3)
부패	-0.010 (0.006)	0.011 (0.007)	0.011* (0.006)	0.014** (0.007)	0.000 (0.013)	0.009 (0.007)
ln1인당GDP (달러)	1.619*** (0.192)	0.123 (0.414)	0.508 (0.313)	-0.291* (0.166)	-0.314 (0.601)	0.018 (0.309)
고용률	0.054*** (0.008)	0.050*** (0.009)	0.049*** (0.007)	0.024*** (0.009)	0.046** (0.019)	0.039*** (0.012)
지니계수	2.751*** (0.742)	-2.466 (1.675)	-0.693 (1.180)	3.218*** (0.923)	2.630 (2.095)	3.214** (1.340)
기대수명	-0.061*** (0.019)	0.023 (0.033)	0.006 (0.024)	0.078*** (0.015)	0.016 (0.044)	0.041 (0.026)
평균교육기간	-0.317*** (0.057)	-0.238*** (0.082)	-0.245*** (0.057)	0.033 (0.039)	0.006 (0.079)	-0.014 (0.051)
사회적관계	0.006 (0.010)	0.011** (0.005)	0.012** (0.005)	0.018 (0.014)	0.006 (0.010)	0.007 (0.008)
공공사회지출	0.020*** (0.005)	0.008*** (0.003)	0.009*** (0.003)	-0.006 (0.004)	-0.000 (0.004)	0.001 (0.003)
자유지수	0.026*** (0.008)	-0.018** (0.008)	-0.002 (0.006)	0.014*** (0.004)	0.008 (0.008)	0.011** (0.006)
Observation	219	219	219	191	191	191
R-square	0.533	0.484	0.461	0.680	0.080	0.071

주: 괄호안은 표준오차를 의미한다. ***p<0.01, **p<0.05, *p<0.1 연도더미를 포함했으나 보고하지 않는다.

공공사회지출이 OECD 평균값의 이상인 국가의 경우 부패인식 한 단위 증가가 0.014 정도 행복지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통계적으로도 유의했다. 부패 이외의 통제변수에서는 고용률이 1단위 증가하는 경우 OECD의 공공사회지출 평균값 미만 그룹에서 이상 그룹보다 행복지수가 더 크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사회지출이 OECD 평균값의 미만인 국가 그룹은 평균 교육기간이 짧을수록 행복이 증가함을 보였다. 또한, 같은 그룹에서 사회적 관계가 1단위 증가할 때 행복지수가 0.011-0.012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보였다. OECD 평균값의 미만인 국가 그룹은 공공사회지출이 1단위 증가함에 따라 행복지수도 0.009-0.020정도 증가했다.

V. 결론

이제까지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부패인식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았다. 부패인식 향상은 행복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며 부패인식이 1단위 증가했을 때 행복은 0.008-0.014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부패한 국가에서는 국민이 행복하지 않다는 것이다. 나아가 경제수준, 사회수준, 정부 수준으로 분류하여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실증 분석한 결과 고용률, 평균교육기간, 사회적 관계, 공공사회지출이 증가할수록 행복은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1인당 GDP, 지니계수, 기대수명, 자유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OECD 국가들을 고용률, 사회관계, 공공지출로 분류한 후 분석한 결과에서도 부패인식이 증가했을 때 대부분의 경우 행복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이러한 실증분석에 대한 결론은 인과관계를 의미하지는 않으며 상관관계를 나타낸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한계점은 첫째, 행복과 부패사이의 내생성 문제가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부패가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지와 관련한 역인과성은 문헌에서 잘 다루어지지 않았다. Welsch (2008), Tavits (2008), Ott (2010a)는 부패가 행복과 부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발견하고 행복이 높을수록 부패가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이들은 모두 역인과관계를 다루지는 않았다.

둘째, 개인 단위 이질성을 반영하지 못했다. 개인단위의 이질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 먼저 이 논문은 행복과 부패에 대해

국가 단위의 실증분석에 초점을 두어, 개인 단위의 데이터는 다루지 않았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 발전하여 개인 단위와 국가 단위 데이터의 다층모형분석(multi-level)을 통해 논의를 확장하는 후속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의 한국에의 정책적 시사점은 국민 행복에 대한 측정도구와 지표가 개별국가별로 자체적으로도 활성화⁵⁾되는 추세이므로 한국도 국민 행복 지수를 구축하고 더불어 한국형 부패인식지수를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논문의 실증분석결과와 같이 부패인식은 국가행복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행복에 대한 측정이 중요시되고 있는데, 행복에 대한 정의와 측정이 쉽지 않아 현재 이를 측정하는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행복 지수는 정책 설계, 입법화, 행정집행 등이 필요하며, 유지 관리를 위한 평가와 보고를 공식적으로 해야 한다.

또한, 복지 지출 확대가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각 부처의 예산에 복지 지출관련 지출이 보다 많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뉴질랜드의 경우 정신건강과 아동 빈곤, 가정폭력, 노숙자, 소수민족 등을 포함한 삶의 질에 우선적으로 많은 투자를 하는 소위 '웰빙 예산'(Wellbeing Budget)을 2019년 최초로 도입했다. 최근 우리나라도 기존에 발표하는 삶의 질 지표를 재정사업과 연결하는 방안부터 시도하고 있다. 각 부처가 웰빙 데이터 개선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발굴하는 연구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국가적 과제로 여겨진다.

5) 캐나다의 CIW(Canadian Index of Well-being), 부탄의 GNH(Gross National Happiness), 영국의 GWB(Gross well-being, 가안), 중국, 일본, 브라질 등의 국가에서도 국민행복 관련 지표를 구축하였거나 구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참고문헌

1. 신봉호. (2010). 정부지출 구조와 부패. 재정학연구, 3(1), 117-144.
2. 이태진, 김성아, 이병재, 엄다원, 정해식, 최준영, ... & 채상원. (2021).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관한 종합연구: 국제비교를 중심으로.
3. 전승봉. (2018). 행복한 국가의 조건은 무엇인가: 거버넌스의 질, 신뢰, 평등, 그리고 보편적 복지제도를 중심으로. 비판사회정책, (58), 279-322.
4. Akerlof, G. A., and Shiller, R. J. (2010). Animal spirits: How human psychology drives the economy, and why it matters for global capitalism. Princeton university press.
5. Alesina, A., Di Tella, R., and MacCulloch, R. (2004). Inequality and happiness: Are Europeans and Americans different? Journal of Public Economics, 88(9-10), 2009-2042.
6. Altindag, D. T., and Xu, J. (2017). Life satisfaction and preferences over economic growth and institutional quality. Journal of Labor Research, 38(1), 100-121.
7. Aydan, S., Bayin Donar, G., and Arikan, C. (2022). Impacts of Economic Freedom, Health, and Social Expenditures on Well-Being Measured by the Better Life Index in OECD Countries. Social Work in Public Health, 37(5), 435-447.
8. Becker, G. S., and Tomes, N. (1986). Human capital and the rise and fall of families. Journal of labor economics, 4(3, Part 2), S1-S39.
9. Blanchflower, D. G., Bell, D. N., Montagnoli, A., and Moro, M. (2014). The happiness trade-off between unemployment and inflation. Journal of Money, Credit and Banking, 46(S2), 117-141.
10. Bradshaw, J., and Richardson, D. (2009). An index of child well-being in Europe. Child Indicators Research, 2(3), 319-351.
11. Brülde, B. (2010). Happiness, morality, and politics.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1(5), 567-583.
12. Clark, A. (2003). Inequality-aversion and income mobility: A direct test. Delta.
13. Clark, A. & Oswald, A. (1995). Satisfaction and comparison income. Journal of Public Economics, 61, 359-381.
14. Coggburn, J. D., and Schneider, S. K. (2003). The relationship between state government performance and state quality of life.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26(12), 1337-1354.

15. Dorn, D., Fischer, J. A., Kirchgässner, G., and Sousa-Poza, A. (2007). Is it culture or democracy? The impact of democracy and culture on happiness. *Social Indicators Research*, 82(3), 505-526.
16. Easterlin, R. A. (1974). Does economic growth improve the human lot? Some empirical evidence. In *Nations and households in economic growth* (pp. 89-125). Academic Press.
17. Elliott, K. A. (1997). *Corruption and the global economy*. Peterson Institute.
18. Frey, B. S., and Stutzer, A. (2000). Happiness, economy and institutions. *The Economic Journal*, 110(466), 918-938.
19. Furnham, A., & Cheng, H. (2000). Perceived parental behaviour, self-esteem and happiness.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35, 463-470.
20. Glaeser, E. L., and Saks, R. E. (2006). Corruption in America. *Journal of Public Economics*, 90(6-7), 1053-1072.
21. Growiec, K., and Growiec, J. (2014). Trusting only whom you know, knowing only whom you trust: The joint impact of social capital and trust on happiness in CEE countries.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5(5), 1015-1040.
22. Gupta, S., de Mello, L., and Sharan, R. (2001). Corruption and military spending.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7(4), 749-777.
23. Habib, G., and Sadek, S. (2021). Social public spending policy and quality of life in Algeria: Econometric study with ARDL model during (1990-2018). *Strategy and Development Review*, 11(1), 517-532.
24. Haile, F., and Niño-Zarazúa, M. (2018). Does social spending improve welfare in low-income and middle-income countries?.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30(3), 367-398.
25. Hartog, J., & Oosterbeek, H. (1998). Health, wealth and happiness: why pursue a higher education?. *Economics of education review*, 17(3), 245-256.
26. Helliwell, J. F. (2003). How's life? Combining individual and national variables to explain subjective well-being. *Economic modelling*, 20(2), 331-360.
27. Helliwell, J. F., Layard, R., & Sachs, J. D. (2017). *World happiness report 2017*.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28. Hommerich, C., and Tiefenbach, T. (2018). Analyzing the relationship

- between social capital and subjective well-being: The mediating role of social affiliation.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9(4), 1091-1114.
29. Inglehart, R. (1997). Modernization, postmodernization and changing perceptions of risk. *International Review of Sociology*, 7(3), 449-459.
 30. Inglehart, R. (1999). Trust, well-being and democracy. *Democracy and trust*, 88, 88-120.
 31. Khorsandi, M., and Azizi, Z. (2015). Estimating the Threshold Effect of Unemployment on Happiness. *Iranian Economic Development Analyses*, 3(2), 59-79.
 32. Konow, J., and Earley, J. (1999). *The Hedonic Paradox: Is Homo Economicus Happier*. Economics Faculty Works. Los Angeles, CA: Loyola Marymount Univ.
 33. Kurer, O. (2005). Corruption: An alternative approach to its definition and measurement. *Political Studies*, 53(1), 222-239.
 34. Lambsdorff, J. G. (1999). Corruption in empirical research: A review. Transparency International, processed, 6.
 35. Li, Q., and An, L. (2020). Corruption takes away happiness Evidence from a cross-national study.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21(2), 485-504.
 36. Mauro, P. (1998). Corruption and the composition of government expenditure. *Journal of Public Economics*, 69(2), 263-279.
 37. Michalos, A. C., & Michalos, A. C. (2017). Education, happiness and wellbeing. *Connecting the Quality of Life Theory to Health, Well-being and Education: The Selected Works of Alex C. Michalos*, 277-299.
 38. Mo, P. H. (2001). Corruption and economic growth.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29(1), 66-79.
 39. Myers, D. G., and Diener, E. (1995). Who is happy?. *Psychological science*, 6(1), 10-19.
 40. Nordheim, O., and Martinussen, P. E. (2020). Happiness and the role of social protection: how types of social spending affected individuals' life satisfaction in OECD countries, 1980-2012.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Social Policy*, 36(1), 1-24.
 41. Oswald, A. J. (1997). Happiness and economic performance. *The economic journal*, 107(445), 1815-1831.
 42. Okun, M. A., Stock, W. A., Haring, M. J., & Witter, R. A. (1984). Health and subjective well-being: A meta-analysi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 aging and human development, 19(2), 111-132.
43. Ott, J. C. (2010). Good governance and happiness in nations: Technical quality precedes democracy and quality beats size.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1(3), 353-368.
44. Powdthavee, N., Lekfuangfu, W. N., & Wooden, M. (2015). What's the good of education on our overall quality of life? A simultaneous equation model of education and life satisfaction for Australia. *Journal of behavioral and experimental economics*, 54, 10-21.
45. Rose-Ackerman, S. (1999). Political corruption and democracy. *Conn. J. Int'l L.*, 14, 363.
46. Rothstein, B. (2010). Corruption, happiness, social trust and the welfare state A causal mechanisms approach.
47. Rothstein, B., and Stolle, D. (2003). Introduction: social capital in Scandinavia. *Scandinavian Political Studies*, 26(1), 1-26.
48. Rothstein, B., and Uslaner, E. M. (2005). All for all: Equality, corruption, and social trust. *World politics*, 58(1), 41-72.
49. Sacks, D. W., Stevenson, B., and Wolfers, J. (2010). Subjective well-being, income, economic development and growth. NBER Working Papers Series.
50. Samanni, M., and Holmberg, S. (2010). Quality of government makes people happy.
51. Schwarze, J., and Härpfer, M. (2007). Are people inequality averse, and do they prefer redistribution by the state?: evidence from german longitudinal data on life satisfaction. *The Journal of Socio-Economics*, 36(2), 233-249.
52. Schyns, P. (1998). Crossnational differences in happiness: Economic and cultural factors explored. *Social Indicators Research*, 43(1), 3-26.
53. Scully, G. W. (2001). Government expenditure and quality of life. *Public Choice*, 108(1), 123-145.
54. Smyth, R., and Qian, X. (2008). Inequality and happiness in urban China. *Economics Bulletin*, 4(23), 1-10.
55. Stiglitz, J. E., Sen, A., and Fitoussi, J. P. (2009). Report by the commission on the measurement of economic performance and social progress.
56. Tanzi, V., and Davoodi, H. (1997). Corruption, public investment.

57. Tanzi, V. (1998). Corruption around the world: Causes, consequences, scope, and cures. *Staff papers*, 45(4), 559-594.
58. Tavits, M. (2008). Representation, corruption, and subjective well-being.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41(12), 1607-1630.
59. Veenhoven, R. (1996). Developments in satisfaction-research. *Social indicators research*, 37, 1-46.
60. Veenhoven, R. (2010). Capability and happiness: Conceptual difference and reality links. *The Journal of Socio-Economics*, 39(3), 344-350.
61. Verme, P. (2009). Happiness, freedom and control.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and Organization*, 71(2), 146-161.
62. Wang, P., Pan, J., and Luo, Z. (2015). The impact of income inequality on individual happiness: Evidence from China. *Social Indicators Research*, 121(2), 413-435.
63. Wasmer, R. W., Lascher, E. L., and Kroll, S. (2009). Sub-national fiscal activity as a determinant of individual happiness: Ideology matters.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0(5), 563-582.
64. Welsch, H. (2003). Freedom and rationality as predictors of cross-national happiness patterns: The role of income as a mediating variable.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4(3), 295-321.
65. Welsch, H. (2008). The welfare costs of corruption. *Applied Economics*, 40(14), 1839-1849.

ABSTRACT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Happiness and Corruption: An Analysis of OECD Countries and Implications for Korea

LeeGHyun, Choi In

This paper examined the impact of corruption on happiness using 2012-2021 panel data from OECD countries. The linear regression, fixed-effects, and random-effects models were employed for the empirical analysis. After controlling the effects of economic, social, and government variables, we found that less corruption increases happiness. These results indicate that government must implement public policies to decrease corruption levels for citizens to be happier.

Key Words: corruption, happiness, employment rate, social interaction, public expenditure

JEL Classification: D73, I31, G41